

「해업」: 어업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다면적 진흥



쿠로사와 카오루(黒澤馨)
어항어장어촌기술연구소
제2조사연구부장

「해업(海業)」

- 카나가와현 미우라시(神奈川縣 三浦市)에 서 만들어낸 말로써 「어업에서 마린 레저 까지 바다·해변을 이용하는 다양한 활동」을 의미함
- 그 후 전국의 어업지역에서 어업지역의 진흥 수단으로써 「해업(海業)」이 도입되고 있음
- 주된 「해업(海業)」: 어업체험, 유어, 수산 물직판, 씨푸드 레스토랑, 씨푸드 마켓, 학 교급식으로 수산물 제공, 어촌의 마치나 미(옛 거리, 옛 모습)보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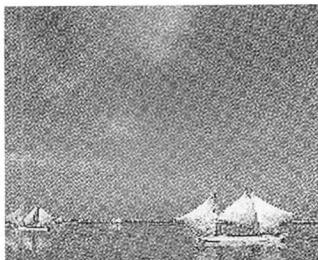
「해업(海業)」의 주된 메리트

- 어업진흥
- 어업지역진흥
- 어업 및 어업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촉진
- 어업지역의 다종다양한 자원의 다목적 활용(수산자원의 부가가치 증가, 국민을 위한 여가공간 제공, 교육터 제공, 전통문화의 계승 등)

어업지역에서의 해업(海業) 사업사례

「어업·어로」자원의 활용사례

「역사·문화의 전승」



(북해도 베카이초 노츠케 어협)
(北海道別海町野付漁協)

「어업체험학습」



(후쿠이현 미하마초 뉴우 어협)
(福井縣美浜町丹生漁協)

「해양레크리에이션」



(오사카부 타지리초 타지리 어협)
(大阪府田尻町田尻漁協)

「생태계」자원의 활용사례

「생태계 해양레크리에이션」



(코지현 토사시 우사어협)
(高知縣土佐市宇佐漁協)

「생태계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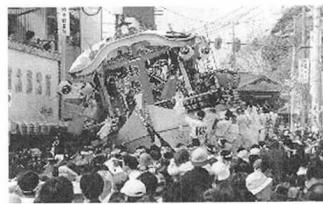
(북해도 베카이초 노츠케어협)
(北海道別海町野付漁協)

「어촌」자원의 활용사례

「역사·문화의 전승」



(교토부 이네초 이네)
(京都府伊根町伊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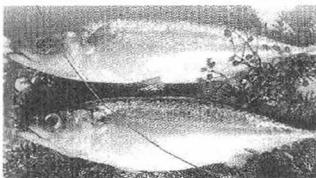
(이바라기현 북이바라기시 오츠)
(茨城縣北茨城市大津)

「유통·판매」자원의 활용사례

브랜드화



(치바현 촌시시 촌시시어협 토가와지소)
(千葉縣銚子市銚子市漁協外川支所)



(가고시마현 나가시마쵸)
(鹿兒島縣長島町)

식육(食育)



(가나가와현 미우라시)
(神奈川縣三浦市)

직판시설과 어식시설



(가고시마현 히오카시 에구치어협)
(鹿兒島縣日置市江口漁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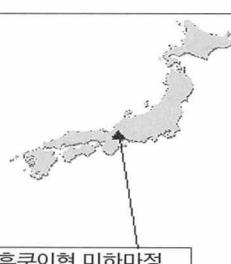
(치바현 교난마치 호타어협)
(千葉縣鋸南町保田漁協)



(치바현 촌시시 촌시시어협)
(千葉縣銚子市銚子市漁協)

대부망과 지예망의 체험어업에 의한 지역진흥사례

후쿠이현 미하마정 뉴우어협(福井縣美浜町丹生漁協)



사업경위

- 뉴우어협에서는 1998년부터 대부망조합인 대형정치망(2통) 및 지예망을 이용하여 도시어촌교류를 목적으로 한 어업체험을 실시
- 지방 민속에 숙박하여 정치망·지예망어업체험 외에 낚은 물고기를 사용한 요리교실을 실시
- 어업자가 어업체험 등 각종체험의 인스트럭터로서 종사
- 미하마정(美浜町)과 미하마정 관광협회가 지원



지역에 대한 효과

- 매년의 기후조건 등에 의해 체험어업의 참가자수의 변동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증가추세임
- 정치망 등을 사용해보는 어업체험 후 음식체험에서는 어협여성부 등에 의해 5명 정도가 인스트럭터로 취업
- 체험어업의 인스트럭터가 되는 것에 삶의 보람을 느끼는 어업자가 많다.
- 앞으로는 체험메뉴의 다양화와 농림업도 조합시킨 메뉴로 이용자수를 증가시킬 계획



지역수산물을 이용한 직판시설과 어식 레스토랑에 의한 지역진흥사례

카고시마현 히오키시 히가시이치키정(鹿兒島縣日置市東市來町)



사업 경위

- 히가시이치키정 애구치(江口)어협은 시장에서 아주 낮은 가격으로밖에 팔 수 없는 규격 외의 어획물을 매입하여 자영수산가공공장에서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다.
- 수산가공공장에 부대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판매소를 설치
- 수산가공공장이 노후화되고 직판장이 비좁기 때문에 개축을 계획
- 현장의 부지는 좁고 그곳에서의 개축은 주차장이 확보될 수 없는 등의 원인으로 해양환경정비에서 정비된 배후용지를 이용
- 개축을 계기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2년 「어항어촌활성화대책사업」을 도입하고 물산관과 레스토랑 「타네가시마(種子島)주변어업대책사업」을 도입함으로써 수산가공공장을 일체적으로 정비하여 「애구치호우라이칸(江口蓬萊館)」으로 명명



지역에 대한 효과

- 해안환경정비사업에서 정비된 해수욕장, 공원, 낚시부두 등이 접근, 지역주민뿐 만이 아닌 관광객의 유치에 성공
- 주차스페이스는 승용차 47대, 버스 4대, 기타 미포장 용지가 있어 주차장으로서 대용 가능
- 경제효과로 2005년의 이용객수는 약 45만명, 매출액은 9억8천만엔
- 고용효과로 당해 시설의 정직원으로 어업직원 3명, 파트타임 36명(물산관 13명, 수산가공공장 7명, 레스토랑 16명) 아르바이트 약 50명 등이 종사하고 있음
- 직판시설로의 출하자는 수산물 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포함하여 293명(등록자수)에 달한다.
- 어식 레스토랑에는 관광객의 이용이 많고 예상을 웃도는 이용객이 있어 시설이 비좁아져 증축을 계획하고 있음

직판시설 「바다의 시장」에 의한 지역진흥사례



사업 경위

- 케센누마시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케센누마어항은 전국적인 양류량을 자랑하는 특종 제 3종어항임
- 케센누마어항에 위치하는 어시장에는 꼬치를 비롯해, 참치, 가다랭이, 상어 등을 양류
- 수산도시인 케센누마시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산의 관광활용을 모색
- 노후화된 어시장의 개축을 계기로 어시장과 직결한 신선한 어패류를 판매하는 해선시장 「바다의 시장」을 1997년에 오픈
- 전국 일등의 상어양류를 자랑하는 케센누마를 소개하는 「리아스상어뮤지엄」을 병설



지역에 대한 효과

- 「바다의 시장」의 방문객수는 100만명을 초과하며 안정적으로 추이되고 있음
- 인접어시장에 견학브릿지를 설치하여 많은 관광객이 시장의 경매현장을 견학. 수산에 대한 이해의 향상과 도시주민과의 교류에 공헌
- 주변 7개의 바다에서 활약하는 어선의 출어안벽을 관광객이 휴식할 수 있는 「바다의 길」로 정비

어촌전통문화의 보존에 의한 지역진흥사례

이바라기현 기타이바리기시(茨城縣北茨城市)



사업경위

- 「히타치 오오츠(常陸大津)의 배축제(御船祭)」는 1980년에 국가 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예전부터 전해오는 사와와치기 신사의 제례(祭禮)에서 지역의 평화와 번영 및 풍어와 해상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만든 목조선(木造船)을 옛날의 강줄기들 따라서 예행하는 행사
- 육상은 바퀴를 사용하지 않고 주판으로 불리는 가마를 사용해서 당기거나 예전부터 전해오는 배의 노래 및 민속음악을 연주
- 그 외 오오츠어항에서는 어선을 모방하여 만든 추석선을 추석 때 띄우고 있다. 이러한 예전부터 전해오는 전통문화는 사람들에게 전해져 근년부터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이러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블루투어리즘(키타이바리기시 농촌생활체험교류)를 추진하고 있음



지역에 대한 효과

- 「히타치 오오츠 배축제」는 경비문제로 5년에 한번 정도 거행되지만 지명도가 높아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모여든다.
- 상기의 전통문화 뿐만 아니라 「우정(雨情)의 고향항(里港)축제」가 오오츠어항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오오츠지방의 지명도가 높아 방문객이 증가되고 있다. 당시 항 축제에서는 블루투어리즘의 일환으로서 2005년부터 어선승선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 이러한 귀중한 지역자원을 이용하여 도시어촌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시에서는 「강력한 수산업 기부금」을 도입하여 「어업역사자료관」을 정비 중



사업경위

- 아이즈어항에서는 급식으로 수심이 깊은 스루가만에서 수심이 다른 2종의 해양 심층수를 2001년부터 끌어올려 재배어업센터나 시장, 수산가공공장, 일반시민의 이용 등에 폭넓게 이용하고 있다.
- 시에서는 해양심층수의 특성을 활용하여 주민의 건강과 마음의 위안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관광객의 유치에도 기여할 수 있는 해양심층수온천시설(thalassa therapy 타라소 테라피)를 계획
- 또한 지방에서 양륙하고 가공된 수산물을 제공하는 직판시설을 함께 정비함으로써 수산도시로서의 상승효과를 도모한 것도 있다.



지역에 대한 효과

- 타라소 테라피 시설은 운영을 포함한 설계제안방식 의해 전국에서 응모한 안에서 최우수안을 채택하여 「신어촌커뮤니티기반정비사업」을 도입하여 정비를 추진, 2006년에 오픈
- 당해시설은 후지산이나 이즈반도의 조망을 최대한으로 이용함으로써 전국에서도 유수한 양류량을 자랑하는 수산도시의 활기도 함께 실감할 수 있는 시설로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 채산라인의 월 회원 1,000명의 목표에 대하여 2006년내에 1,070명의 회원회보를 달성



어장보전을 목적으로 대도시권의 소비자와 연계한 식수를 활용한 지역진흥사업 북해도 베카이쵸 노츠케어협(北海道別海町野付漁協)



사업경위

- 어장자원이 풍요로운 노츠케만과 접하고 있으며 자원조화형의 전통적업인 북해도섬 새우 우타세아미어업(打瀬網; 풍력에 의한 어업)이 영위되고 있다.
- 노츠케만은 폐쇄적인 해역이고 어장 오염 등에 의한 자원고갈의 위험성이 있다.
- 노츠케어협 여성부에서는 노츠케만의 어장을 지키기 위해 노츠케만에 흘러드는 하천유역에서 1988년부터 「물고기를 키우기 위한 식수운동」을 개시
- 노츠케어협에서도 1989년부터 대규모적인 식수를 개시
- 그 실적은 2005년까지 어협여성부의 누적식수 29,431그루, 노츠케어협 누적은 337,916그루에 달한다.

지역에 대한 효과

- 노츠케어협에서는 지방에서 양류되는 어폐류의 자영냉동가공사업을 실시하여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은 주로 대도시권의 생협 등에 판매
- 어협여성부의 식수운동에 함께 나선 생협조합원이 2000년부터 어협여성부와 함께 식수운동에 참가
- 냉동가공장에 부대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작은 판매소(1평반)가 있었지만 2005년에는 「강력한 수산업가꾸기 교부금」을 도입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판매만이 아닌 생협조합원의 안데나숍으로서 직판점「카이몬(海紋)」을 정비
- 노츠케어협의 「물고기 키우기 식수운동」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고 또한 전국적으로 보기 드문 풍력에 의한 우타세아미(打瀬網)어업과 그것에 따른 「새우축제」는 당초에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1만명정도의 방문객수를 증가시켜 3만명을 기록하였다.

「해업(海業)」의 전국적 진흥을 위한 금후의 주된 과제

- 「해업(海業)」의 추진지역에 대한 지원체계 [지역의 고유한 자원의 활용수법, 경영·운영수법, 기술, 고객과의 중개작용, 인재(젊은이, 여성, 전후 세대, 시니어세대 등)의 효과적인 활용, 전문 어드バイ저에 의한 조언]의 구축

- 성공모델지역의 창조와 전국에 소개